2월 자기코칭

우리는 일만 해야 하나요? (직장&일)

직장생활이 즐거우신가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속해있는 일터,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행복한 일터에서의 생활이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즐겁게 일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의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보고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Q. 직장생활을 계속해 나가려면 우리는 계속 일만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쉼입니다. 쉼은 일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언제 쉽니까? 휴가를 떠나면 쉴 수 있을까요? 일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있습니다. 기계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지만,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다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일과 쉼과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세상을 만드시며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신 것처럼 여러분의 일에서도 쉼과 안식을 취해보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여러분의 일을 세워나간다면 일하는 삶이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Q: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나요?

A: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각 사람에게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창조 때에 자신의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맡겨진 일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겨날 것입니다.

Q: 일을 하면서 성과나 연봉이나 진급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A: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경쟁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보수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해야 합니다. 즉, 결과보다는 과정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과정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감과 욕심에서 벗어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속해있는 일터와 직장에서 지치고 힘들지 않았나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일을 세우고 더 좋은 행복한 모습으로 직장과 세상으로 힘껏 나아갑시다.